기후재앙 시대, 불교는

개인 실천 넘어선 정책 변화 필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 대안

관심 · 이해서 실천 의지 생겨
일회용품 자제 등 노력도 중요
개인 넘어선 사회여론 주도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 이어져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 불교 등 6대 종교가 참여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 모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사회를 위한 개개인의 삶의 변화와 인식 전환, 나아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는 대중은 그 자체로 정책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적극적인 실천과 대정부 활동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대중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패트병 분리배출 시엔 비닐을 제거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콘센트를 제거하는 등의 여러 방법도 인터넷상으로 공유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이 같은 개인적인 실천행은 기후위기를 감소시키는 데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위기는 그만큼 심각해졌고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부 정책의 변화다. 기업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친환경 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전환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천하는 개인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바로 '시민의식'이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개인의 실천 자체가 기후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대중이야말로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대중들의 실천을 이끌고 그 실천을 여론으로 모아내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기보다 대대적인 전환이어야 하기에 사회적 인식 확산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 때문에 '탄소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불교기후행동이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대목 역시, 무관심한 불자들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끌고, 실천하는 개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교기후행동은 10월 22일 서울 낙산묘각사(관음종 총본산, 주지 홍파)에서 워크샵을 열고 불교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확산 및 실천방안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페인 참여 통한 적극성 고취

불교기후행동이 지난 6월 15일 발족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지역사회 내 인식전환 캠페인이다. 매주 목요일을 '불교기후행동의 날'로 정하고 단체별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서 착안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학교 대신 국회로 가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교기후행동 소속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과 광주, 전주(전북)지역에서 불교기후행동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실무자들의 평가다.

개인 SNS를 활용한 캠페인 동참도 추천할 만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방안을 서약하는 글귀를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게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붓다'를 통해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명상절 108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고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명상절을 체험한 후 이를 인증하는 방식의 '절 챌린지'로 눈길을 끈다.

기후위기 극복 최고 실천행, 채식

얼핏 기후위기와 채식은 무관하게 인식되지만, 사실 채식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다.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는 "채식은 최상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온실가스를 줄여 빠른 냉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고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비상사태는 인류의 과도한 살생에서 빚어진 나쁜 응보(악업)의 산물이자, 이로 인해 지구의 자기치유력을 감소시킨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대표는 "불교계는 이미 채식문화에 익숙하고 생명존중과 인드라망 사상 등 가르침 자체로 채식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일상 속 실천의지만 있다면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채식운동 확산을 기대했다.

28개 녹색사찰 협약… 녹색 · 공유센터 운영 등

녹색사찰서 배우는 Tip

녹색사찰은 불교 생태주의 사상과 전통에 따라 운영되거나, 혹은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찰을 지칭한다. 현재 28개 사찰이 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실천안은 크게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녹색리더 양성(신도 대상 환경인식교육), 사찰 내 환경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생태감수성 높이기 활동, 녹색 · 공유센터 운영 등이다.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고양 금륜사**(주지 효욱)의 경우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 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맺은 제1호 녹색사찰로, 이미 협약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협약 이후에는 법회 후 떡을 담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기 지참을 의무화했으며, 미처 챙기지 못한 신도들에게는 사찰용기를 빌려주는 대신 벌금으로 '장학기금'을 보시하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장성 천진암**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은 물론, 요리에 사용할 수 없는 야채의 꽁지 부분을 모아 채수를 만들거나 숭늉 대신 마시기도 한다.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곡물가루 등과 섞어 발효시킨 후 퇴비로 사용한다. 법회나 행사시 사용하는 꽃장식도 쓰레기가 나오는 꽃꽂이 대신 야생화를 흙에 심어 장식한 뒤, 법회나 행사 후에는 사찰 주변에 옮겨 심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천진암의 녹색사찰 캠페인.

울산 백련사(주지 천도)는 환경활동가 양성도량이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법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환경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신도교육을 통해 배출한 환경활동가들은 지역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중들의 인식 변화 및 실천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구미 화엄탑사(주지 희운)는 에너지 절약의 대표주자다. 前 주지 명법 스님이 주석하던 2019년 자연 냉난방 및 온습도 조절을 위해 창문을 창호지로 변경했으며, 구미시 최초로 사찰 건물 동쪽과 남쪽 외벽에 넝쿨식물을 심어 '그린커튼'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도 등으로 눈길을 끈다.

송지희 기자

불자들을 위한 기후대책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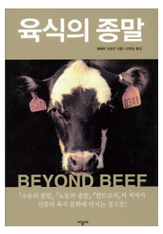

조애나 메이시의 '생명으로 돌아가기' 모과나무

'기후위기 시대 거대한 전환을 위한 안내서'라는 부제목으로 최근 출판된 번역서로,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감수를 맡았다. 조애나 메이시가 제안하는 '재연결 작업'은 우리가 존재의 근본인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담아낸 치유의 작업이다.

특히 사람들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끌고 자율적으로 대전환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거대 자본의 지배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데 목적을 둔다. 책은 '재연결 작업'의 일환으로 개인이, 또는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잡이가 돼 준다.


데이비드 로이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불광미디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불교적 깨달음을 꽃피우는 최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생태보살로 거듭나기 위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끈다. '기후변화에 관한 불교선언'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불교원리 16가지' '간단하고 실천적인 조치' 등을 부록으로 게재했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이 번역했다.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시공사

행동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다. 육식 중심의 문화가 환경과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고대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육식으로 인한 폐해를 담아냈다.

나아가 육식문화에서 채식문화로의 전환이 전지구적, 인류학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